

공개용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4-8호)

2025. 2. 20.

무 역 위 원 회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년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등으로 표시함

무 역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의결 제2025-4호
조 사 번 호	구제 23-2024-8호
조 사 건 명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원심)
신 청 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동구 봉중대로 63 대표자 서 강 현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영진, 송지연, 공인회계사 윤주환
피 신 청 인 1)	1. Baoshan Iron & Steel Co., Ltd.(바오스틸) 및 그 관계사 2. Jiangsu Shagang Steel Co., Ltd.(장수사강) 및 그 관계사 3.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상탄스틸) 및 그 관계사 4.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사이노 인터내셔널) 5. 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샤먼 아이티지) 6. 그 밖의 공급자
조 사 대 상 물 품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HS 코드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의 결 일	2025. 2. 20.

상기 안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등 관련 규정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과 그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다.
2.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관세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1조제9항 제2호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 바오스틸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7.91%
 - 장수사강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9.62%
 - 상탄스틸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02%
 - 사이노 인터내셔널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02%
 - 샤먼 아이티지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02%
 - 그 밖의 공급자 : 31.69%

1) 각 피신청인의 주소는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이 유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신청인”)가 2024.7.31. 신청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건(조사개시 : 2024.10.4.)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이하 “예비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의한 본조사를 개시하며, 주문과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2호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I. 배경

신청인은 2024.7.31.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조사실은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여 동 사항을 2024.10.4.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신청인 및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 동국제강 주식회사(이하 “동국제강”)이며,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상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중국의 ‘바오스틸 및 그 관계사’, ‘장수사강 및 그 관계사’, ‘상탄스틸 및 그 관계사’, ‘사이노 인터내셔널’, ‘샤먼 아이티지’ 5개사를 조사 대상공급자로 선정하고,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에이치디현대삼호 주식회사,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한화오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주식회사 케이조선 등 국내 수입자와 수요자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1.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과 제3항은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무역위원회공고 제2024-17호(2024.10.4.)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품명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이고, 관세품목분류(HSK)는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이다.

예비조사보고서²⁾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조사범위는 철³⁾이나 비합금강⁴⁾ 및 그 밖의 합금강⁵⁾의 평판압연제품⁶⁾ (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2) 예비조사보고서 p.3 참조

3) “철”과 강(鋼)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보며, 강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한 철재(주조 모양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비합금강”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이 아닌 강

5) 조사신청물품은 일반적으로 “비합금강”으로 생산되나 일부 조사신청물품의 경우 제품의 생산과정 중 붕소(보론)등의 부재료를 소량 첨가하여 “그 밖의 합금강”으로 생산된다.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알루미늄 100분의 0.3, 붕소 100분의 0.0008, 크롬 100분의 0.3, 코발트 100분의 0.3, 구리 100분의 0.4, 납 100분의 0.4, 망간 100분의 1.65, 몰리브데넘 100분의 0.08, 니켈 100분의 0.3, 니오븀 100분의 0.06, 규소 100분의 0.6, 티타늄 100분의 0.05, 텅스텐(볼프람) 100분의 0.3, 바나듐 100분의 0.1, 지르코늄 100분의 0.05, 그 밖의 원소(황·인·탄소·질소는 제외한다) 각각 100분의 0.1

6) “평판압연제품”이란 “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alloy steel)으로 이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며,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국내 동종물품

1) 동종물품 여부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따르면, “동종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비조사보고서⁷⁾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이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 측면에서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과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업적으로 대체가능한 동종물품으로 판단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

7) 예비조사보고서 pp.7-8 참조

2) 부과제외 관련 검토

(1) 두께 100밀리미터 이상 특수판 제외 요청

예비조사보고서⁸⁾에 의하면, 공급자측인 중국강철공업협회는 특수판이 공급원가 및 가격이 높아 국내 하방산업에 과도한 구매부담을 조성할 수 있으나, 중국산 요청 제품은 현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국내업체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신청인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과제외를 요청하였다.

이에 반해, 신청인은 국내생산자 3사(신청인, 포스코, 동국제강)의 제품소개서를 통해 국내생산자가 요청물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신청인의 제품 가격표에 요청물품의 가격정보가 포함되어 요청물품의 국내 판매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요청물품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모두 두께 100밀리미터 이상 특수판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해당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다.

8) 예비조사보고서 p.13 참조

1.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xxxxxx, xx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는 국내생산자인 신청인과 포스코가 이용가능한 국내산업 피해지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고,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xxx%(2023년)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예비적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신청인과 포스코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의 합”으로 판단한다.

2. 비밀취급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신청서,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거나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보고서¹⁰⁾에 의하면, 신청인 등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신청서,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이해관계인 회의 의견서 등 비밀취급

10) 예비조사보고서 pp.21-24 참조

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였다.

공급자측인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조사신청서가 과도하게 비밀처리되어 정보공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주요 수입업체, 주요 소비자, 국내 생산품 평균가격 등 업계 전반 데이터 및 중국 생산능력, 생산량, 설비 가동률, 수요량, 한국 수출 금액 등 공개정보를 비밀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입업체, 소비자,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이고, 중국 생산능력, 생산량, 설비 가동률은 유료자료로 공개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여 신청서에 자료 출처를 공개하였으며, 한국 수출금액은 신청서에 공개된 자료인 바, 과도한 비밀처리에 대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중국 공급자가 제출한 공급자 답변서 공개본은 비밀정보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불가능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진술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 등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가 비밀취급 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비밀이 아닌 요약서로 비밀취급 요청 서류의 공개본을 제출한 점, 비밀취급요청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자료 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고,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에 대한 비공개를 과도한 비밀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IV. 덤핑사실

위원회는 덤핑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 및 조사 경과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급자별로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하였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예비조사보고서¹¹⁾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Howa Trading Co. Ltd.’, ‘Xisc Singapore Pte. Ltd.’, ‘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5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조사참여신청기간¹²⁾ 동안 당초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5개 공급자¹³⁾가 2024.10.24.~25. 동안 자발적 조사참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조사실은 수출물량 및 조사부담, 적시 조사종결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2024.11.28. 이를 통보하였다.

2. 덩핑사실 조사경과

예비조사보고서¹⁴⁾에 의하면, 조사실은 2024. 10. 7. 덤핑률 조사를 위하여 WTO

11) 예비조사보고서 p.25 참조

12) 조사참여 신청기간 : 2024. 10.7. ~10.28.

[illegible]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 (답변 기한 : 2024.11.18.)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 등을 발송하였다.

‘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Howa Trading Co. Ltd.’, ‘Xisc Singapore Pte. Ltd.’은 기한내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2024.10.25(Shagang, Howa), 2024.10.28.(Xisc))하여 조사에 협조의사를 표명하였다.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은 조사참여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아 미대응하였다.

대응한 3개 조사대상공급자는 모두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1차 2024.11.11.(3개사), 2차 2024.11.16.(Xisc), 2024.11.19.(Shagang, Howa))하였고, 조사실은 각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024.11.18.이었던 답변기한을 2024.11.22.(1차), 2024.11.25(2차)로 연장하고, 이를 통보(1차 2024.11.13., 2차 2024.11.21.)하였다.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응한 3개 조사대상공급자는 모두 연장된 기한인 2024.11.25.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2025.1.20. ‘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Howa Trading Co. Ltd.’, ‘Xisc Singapore Pte. Ltd.’에게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다.(답변기한 : 2025.1.23.)

‘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Howa Trading Co. Ltd.’, ‘Xisc

14) 예비조사보고서 p.26 참조

조사실은 예비판정 전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2025.2.11.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온라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인이 덤핑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가. Baoshan Iron & Steel Co., Ltd.¹⁵⁾ 및 그 관계사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¹⁶⁾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중국 상하이, 광둥, 후베이, 광저우, 베이징, 청두(생산자 및 내수판매자) 및 일본 도쿄(수출상)에 소재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상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들로,¹⁷⁾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로

15) 조사개시 당시에는 수입통관자료의 수출자(Howa Trading Co. Ltd)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으나, 예비조사 답변자료에서 생산자로 파악된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로 피신청인으로 한다.

16) 예비조사보고서 p.27 참조

[illegible]

직접 관련되어 있어, 단일경제실체로 간주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약 xxx톤¹⁸⁾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 xxx톤¹⁹⁾, XX
XX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²⁰⁾,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정보 및 경영통계, 내수판매 및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한 조정요소, 제조원가 및 판매 관리비 등을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였다.

조사실에서 원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와 관련하여,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자료가 다음과 같이 합리적 기한내 제출되지 않았다.²¹⁾

① 주요 원재료 관계사 구매자료 미제출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조사대상물품 생산을 위해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주요 투입 요소별 수량, 금액 및 관계사의 생산원가와 비관계사에 대한 판매자료, 비관계사로부터

18) 조사대상기간 동안 XX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19) XX

20) 예비조사보고서 p30 참조

21) 조사실이 송부한 조사질의서에는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 예비 및 최종 판정에 심각한 방해를 하는 경우, 무역위는 별도로 입수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있다.

[illegible]

이에 따라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주요 원재료 가격의 적정 시장가격 판단을 위한
관계사 거래내역과 관계사 생산원가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²⁵⁾

[illegible]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조사대상물품 안내서에 따라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를 구성하여 수출(E-2) 및 내수판매(F-2) 자료를 제출하고, CCN 분류에 따른 가중평균 제조원가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수출 및 내수판매한 xxx개 CCN 가운데 xxx개 CCN의 제조 원가를 누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가미만 검증을 할 수 없는 내수판매는 정상가격 산정 물량 대비 약 xxx%²⁶⁾²⁷⁾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통상의 상거래 판단 및 구성가격 산정을 위한 제조원가 자료를 상당비율(정상가격 산정 물량 대비 약 xxx%) 미제출한 점을 확인하였다.²⁸⁾

③ 관계사 재판매 자료 누락

조사실은 결의서에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판매(내수, 한국수출)와 관련된 모든 관계사가 별도의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매한 관계사가 최초의 비관계자에게 판매한 금액과 관련 비용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재판매 관계사를 보고하면서(xxx), 일부 업무협조가 불가능하여(xxx), 재판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비율은 xxx% 수준이라고 답변하였다.

26) 제조원가가 누락된 CCN은 xxx톤으로 xxxxxxxxxxxxxx 정상가격 산정물량(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xxx톤 대비 약 xxx%이다.

27) 제조회가가 누락된 CCN 가운데 수출모델 xxx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CCN 역시 구성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적정 이유율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대한 자료의 미제출에 해당된다.

28) 피신청인은 예비판정전 이해관계인회의(2025.2.11)에서 CCN 자료누락에 대하여 인정하고 향후 보완자료 제출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조사실은, 이는 덤핑률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미제출로, 신속한 조사진행 등을 고려할 때 수용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23년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관계사의 xxxxxxxxxxxxxxxxxxxxxxxx
등에 따르면 xx 확인되었다.

아울러,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조사대상기간동안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 미보고된 피신청인 관계사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모든 관계사 현황정보를 제출하고, 조사대상물
품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관계사의 전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상당수의 관계사
(xxx) 자료를 미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³²⁾³³⁾

⑤ 비용조정요소 입증자료 미제출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거래건별 판매자료와 그에 대한 조정사항을 제시하고, 표본
거래에 대하여 조정사항을 입증하는 증거세트 및 관련 필드에 보고한 비용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F-2 내수파일에 제출한 내수판매 물류 관련(창고비용, 내륙

32) 피신청인은 예비판정전 이해관계인회의(2025.2.11)에서 실질적 통제 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생산자 관계사에 대하여 상호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i) 그러나 조사실은 질의서 B-3.4, 부록 I에서
답변서 제출 관계사의 범위를 제시하였고, 질의서 B-3 기업구조 및 관계사(회사)에서도 관계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종가격, 판관비, 생산원가를 산정하는데 관계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조사실은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등 관련 규정상 피신청인과
지분관계가 있는 관계사임에도, 통제권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생산원가 및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요청한
자료의 미제출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ii) 그리고 조사실은 관계사에 대한 통제권 유무의
입증, 자료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충분한 입증없이, 요청한 관계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용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iii) 아울러 피신청인은 원답변서에서 이러한 생산, 판매 관련 관계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현황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33) 피신청인은 예비판정전 이해관계인회의(2025.2.11)에서 관계사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가 약 xxx의
조사대상물품을 xx 인정하였다.

운반비)에 대한 산출근거 및 증빙을 누락하였다.

피신청인이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2,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조사신청서의 제조원가와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중 내수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 기간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원가)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주요 원재료의 관계사 구매자료, CCN 제조원가³⁴⁾,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관련 관계사 자료를 미제출함에 따라 조사신청서에서 제출된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제조원가 평균(xxxCNY/톤)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조사신청서의 자료는 독립된 출처이며 공신력 있는 글로벌 철강 조사기관(World Steel Dynamics)³⁵⁾에서 입수한 중국 생산자의 제조원가이다.

아울러 조사실은 사용한 이용가능한 자료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4.7월~'25.5월간 평균 제조원가로서,³⁶⁾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³⁷⁾³⁸⁾

(내수판매 가격)

또한 조사실은, 내수판매 가운데 CCN 제조원가(xxx%) 및 최종 재판매(xxx%)가 누락되어 정상가격에 사용되지 못한 비율(xxx%)에 대하여 피신청인 자료 중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xxx CNY/톤³⁹⁾)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내수가격을 조정하였다.

34) CCN 제조원가 누락(xxx%)은 내수판매가격 뿐만 제조원가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근거이다.
35) World Steel Dynamics(WSD)는 1975년에 설립된 글로벌 철강 산업 트렌드, 가격 예측, 비용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로, 철강사, 철강 사용자, 장비 및 원자재 공급업자, 금융기관, 재무관리사, 정부기관, 무역상 등이 주요 고객이다.
36) 조사신청서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4개 철강사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제조원가를 구성가격 산정 근거로 제시하였다.
37) 조사실은 본 조사에서 제출된 모든 피신청인들의 제조원가는 원재료 공급 관계사, 관계사 생산자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자료의 비교 점검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8)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제조원가는 WSD의 4개 중국 생산자 가운데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평균을 적용하였다.
39)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CN 내수판매 가격 xxxCNY(xxxCNY/xxx톤)을 적용하였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로서 최종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된 내수가격이다.

조사실은 ‘재판매 자료를 제출한 CCN별 비관계사 판매가격 및 물량 가중치(xxx%)’와 ‘대체가격(xxxCNY/톤) 및 누락된 물량 가중치(xxx%)’를 적용하여 조정한 결과를 내수판매 가격에 반영하였다.

(내수판매 비용조정)

그리고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F-2에 제출한 비용 조정요소(창고비용, 내륙운반비)는 산출근거 및 입증자료의 미제출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정요소로 적용하지 않았다.⁴⁰⁾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⁴¹⁾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⁴²⁾,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40) 본 조사에서 모든 피신청인이 내수판매 물류관련 비용(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대한 산출근거 및 입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산출방식이 불합리하여 조사과정에서 입수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정보가 부재하였다.

41)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규격 등을 구분하는 CCN 구성방법으로 ①등급, ②용도, ③규격 및 등급, ④열처리, ⑤두께, ⑥폭, ⑦길이를 기준으로 제시를 제시하였다.

42) 예비조사보고서 pp.36~55 참조

다만, 내수판매 가격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CCN 제조원가 및 관계사 재판매
누락으로, 피신청인의 내수가격 중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정한 결과를 반영⁴³⁾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xxx개 관계사에게 자가소비 용도로 내수판매한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한 결과, 비관계사 판매단가의 98%~102% 범위를 벗어난
xxx 관계사 판매를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⁴⁴⁾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모든 CCN에 대하여 순송장가격과 생산원가⁴⁵⁾를 비교하여,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이상인 경우에는 원가이상 판매를, 20%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를 정상
가격 산정에 사용하였다.

다만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시, 제조원가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주요 원재료 관계사 구매 및 관계사 생산원가, CCN 제조원가, 조사대상물품의 관계사
생산자 자료를 미제출함에 따라, 조사신청서의 제조원가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결과,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에 대하여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⁴⁶⁾하였다.

43) '재판매 자료를 제출한 비관계사 판매가격 및 물량 가중치(xxx%)'와 '대체가격(xxxCNY/톤) 및 누락된
물량 가중치(xxx%)'를 적용하여 조정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44)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조 및 자가소비용으로 판매한 xxx 관계사 가운데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비관계사 가격 대비 xxx%)를 제외한 xxx 관계사 판매를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45)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적용하였다.

46)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총 내수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전체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하였다. 다만, CCN별 내수판매량의 경우, 해당 CCN의 한국
수출량 대비 내수판매량이 5% 미만인 경우, 구성가격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및 충분성 검증 결과 정상 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및 금융비용과 적정 이윤을 합산한 구성가격⁴⁷⁾을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정상가격 조정요소로 제출한 창고비용, 내륙운반비는 산출 근거 및 입증자료가 누락되어 조정요소로 적용하지 않았으며⁴⁸⁾, 단기차입금 이자율,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 등 산출근거가 확인된 신용비용을 정상가격 조정요소로 적용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⁴⁹⁾,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관계사 상사를 통하여 직접 한국에 수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한국에 수출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다만, 조사실은 답변자료를 미제출한 피신청인 관계사가 조사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한 사실을 관세청 통관자료에서 확인함에 따라, 본조사에서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덤핑가격 조정요소는 창고비용, 내륙운반비, 해상운임비, 핸들링비용, 신용비용, 커미션, 관세·통관비용 및 증치세 미환급액을 적용하였다.

증치세 미환급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사항은 아니나, 중국 정부는 철강재 수

47) 제조원가는 조사신청서의 제조원가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고, 판매관리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적정 이윤은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윤율(xxx%)을 적용하였다.

48) 본조사에서 모든 피신청인이 내수판매 물류관련 비용(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대한 산출근거 및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 조사과정에서 입수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49) 예비조사보고서 p.84 참조

출에 대하여 13%의 증치세 환급제를 2021.5월 폐지⁵⁰⁾하였는 바, 매입 증치세 미환급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출 조정요소로 차감하였다.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 받은 가격을 CIF⁵¹⁾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 및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27.91%의 예비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 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나. Jiangsu Shagang Steel Co., Ltd.⁵²⁾ 및 그 관계사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⁵³⁾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중국 강소성, 절강성(XXXXXXXXXXXXXXXXXXXX) 및 싱가포르(XXX)에 소재하고 있다.

50) 중국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HS별 수출 퇴세율을 공시하고 있다.

5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52) 조사개시 당시에는 수입통관자료의 수출자(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으나, 예비조사 답변자료에서 생산자로 파악된 'Jiangsu Shagang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를 피신청인으로 한다

53) 예비조사보고서 p.116 참조

피신청인은 상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들로,⁵⁴⁾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로 직접 관련되어 있어, 단일경제실체로 간주하였다.

[illegible]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⁵⁶⁾,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정보 및 경영통계, 내수판매 및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한 조정요소, 제조원가 및 판매 관리비 등을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였다.

조사실에서 원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와 관련하여,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자료가 다음과 같이 합리적 기한내 제출되지 않았다.⁵⁷⁾

[illegible][illegible]

56) 예비조사보고서 p.119 참조

57) 조사실이 송부한 조사질의서에는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 예비 및 최종 판정에 심각한 방해로 하는 경우, 무역위는 별도로 입수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있다.

① 주요 원재료 관계사 구매 관련 자료 미제출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조사대상물품 생산을 위해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주요 투입
요소별 수량, 금액 및 관계사의 생산원가와 비관계사에 대한 판매자료,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수량, 금액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답변서 G-2.2.f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주요 원재료가 xxxxxxxxxxxx이고, 제조원가 비중은 약 xxx%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답변서 G-2.2g에서 구매한 주요 투입요소가 제조원가 비중이
 xxx이라고 답변하고, xxxxxxxxxxxxxxxxxxxx
 xxx%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23년 사업보고서에서 xxxxxxxxxxxxxxxxxxxx 원가 비중은 xxx%⁵⁸⁾이고,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⁵⁹⁾이며, 전체 원재료 매입 가운데 xxx%를 xxxx⁶⁰⁾ xxxxxxxxxxxxxxxxxxxx 공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주요 원재료의 적정 시장가격 판단을 위한 관계사 거래내역과 관계사 생산원가 등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주요 원재료 및 원가구조에 대하여 왜곡된 답변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⁶¹⁾

[illegible][illegible][illegible]

61) 피신청인은 예비판정 전 이해관계인회의(2025.2.11)에서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는 xxxx이고, xxxxxxxx

② CCN 원가 계산내역 등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제출된 원가 파일 중 내수 및 한국수출 최다판매 CCN에 대하여, COM 파일에 보고된 원가의 산출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원재료, 부재료 등은 실제 투입수량에 당월의 가중평균 출고 단가를 적용하여 직접비를 계산하였고, Utility, 인건비 및 제조경비는 원가중심에 집계되었다가 생산량에 따라 제품에 배분'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수치로 입증된 계산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G-3.2a 제조원가 파일에서 음의 값 및 정상적 원가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다수 보고⁶²⁾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요청된 CCN 제조원가의 산출방식 및 증빙자료를 누락한 점을 확인하였으며⁶³⁾, CCN 제조원가 배분에 체계적 오류⁶⁴⁾가 있는 것으로

[illegible]

62) 피신청인은 답변서 G-3.2a에서 xxx개 CCN 가운데 xxx개를 음의 값으로, xxx개를 xxxCNY/톤 미만의 값으로 보고하였다.

63) 피신청인은 예비판정 전 이해관계인회의(2025.2.11)에서 CCN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 그러나 피신청인은 질의서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수치로 입증된 계산내역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ii) 아울러 피신청인은 부족한 자료에 대하여 조사실이 보충질의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요청,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였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당초 요청한 필수 답변자료는 'CCN별 제조원가'와 이를 샘플로 입증하기 위한 '최다 판매 CCN에 대한 계산내역'으로, 피신청인이 조사에 비협조하여 요청자료를 미제출한 점은 명확하다. iii) 아울러 CCN 제조원가 계산내역은 원답변서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답변자료임에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면밀한 검증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원가자료를 예비판정 시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판단하였다.

③ 관계사 재판매 자료 누락 및 생산자 판매시장 미구분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판매(내수, 한국수출)와 관련된 모든 관계사가 별도의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매한 관계사가 최초의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금액과 관련 비용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재판매 관계사는 독립적 경영 및 비관계사와 동일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상당비율의 재판매 자료를 미제출하였다.⁶⁵⁾

피신청인이 누락한 재판매 물량은 정상가격 물량(약 xxx만톤) 가운데 약 xxx톤으로 xxx%에 달하며, 수출물량(약 xxx톤) 대비 xxx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정상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계사의 최종 재판매를 상당비율(정상가격 산정 물량의 xxx%)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⁶⁶⁾

합리적 기한내 정보제공 요청에 협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iv) 또한 조사실은 보충질의시 누락된 답변 자료의 제출이 아닌, 원답변자료의 검증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였다.

64) 피신청인은 예비판정전 이해관계인회의(2025.2.11)에서 당월 및 차월 생산, 입고, 비용 배분 처리과정에서 스크랩 회수 비용으로 음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철강산업의 원가 처리방식이며 중국의 회계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회계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성립 불가능한 음의 제조원가를 보고하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5) 참고로 미국의 경우, 특수관계자를 통한 하향판매의 경우, 재판매 비율이 5% 미만일 경우에만 보고 면제하고 있다.(USDOC 덤핑조사 매뉴얼 Table XV. 특수관계자 C. 특수관계자 판매)

66) 피신청인은 예비판정전 이해관계인회의(2025.2.11)에서 재판매 자료를 미제출한 3개 회사는 감사보고서에서 관계사로 간주되지 않고 관계거래 역시 특수거래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재판매 관계사는 xxx 관계사의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궁극적으로 관계사 거래검증을 통하여 정상가격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i) 그러나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피신청인의 2023년 감사보고서(123p)에서 해당 관계사가 related party transaction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xxx%의 지분관계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ii) 또한 관계사 거래검증은 최종적으로 관계사가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한 가격에

아울러, 피신청인 생산자는 내수와 수출 판매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판매를 F-2 내수파일에만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시스템상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답변기한내 물리적으로 판매시장 구분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판매의 완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시장별 판매연결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 생산자는 판매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답변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판매자료에서 '최초 생산된 물품의 판매'와 '최종 내수 및 수출 판매된 물량의 합계'가 약 xxx톤(%) 불일치⁶⁷⁾함을 확인하였다.⁶⁸⁾⁶⁹⁾

④ 비용조정요소 입증자료 미제출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거래건별 판매자료와 그에 대한 조정사항을 제시하고, 표본 거래에 대하여 조정사항을 입증하는 증거세트 및 관련 필드에 보고한 비용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요청한 F-2 내수파일 답변서의 물류관련 비용(%)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사실이 송부한 질의서 B3 기업구조 및 관계사(회사)에서도 '관계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종가격을 산정하는데 관계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비관계사 판매 및 궁극적인 관계사 자가소비용 재판매 가격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최종 재판매 가격을 제출하지 않았다.

67) 조사실은 피신청인 'xx'가 판매한 전체 물량(%)과 '최종 판매된 정상가격 산정물량(%) 및 xxxxxxxxxxxxxxxxxxxx 판매 물량(%)'의 차이가 %이며, 이는 정상가격 산정물량(%) 대비 약 %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68) 본조사의 다른 모든 피신청인 생산자는 내수와 수출시장을 구분하여 판매자료를 제출하였다.

69) 피신청인은 예비판정전 이해관계인회의(2025.2.11)에서 여러 관계사들의 재판매 과정 가운데 재고판매 및 판매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판매의 완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피신청인이 생산자 답변서에서 내수, 수출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자료를 제출한 점에서 기인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대한 산출근거 및 증빙을 누락하였다.

피신청인이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2,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조사신청서의 제조원가와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중 내수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 기간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원가)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주요 원재료의 관계사 구매자료, CCN 제조원가 계산내역⁷⁰⁾ 등 조사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미제출함에 따라 조사신청서에서 제출된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제조원가 평균(xxxCNY/톤)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조사신청서의 자료는 독립된 출처이며 공신력 있는 글로벌 철강 조사기관(World Steel Dynamics)⁷¹⁾에서 입수한 중국 생산자의 제조원가이다.

아울러 조사실은, 사용된 이용가능한 자료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4.7월~ '25.5월간 평균 제조원가로서,⁷²⁾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제조원가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⁷³⁾⁷⁴⁾

(내수판매 가격)

또한 조사실은, 피신청인 내수판매 가운데 최종 재판매가 상당비율(xxx%) 누락 되었고, 생산과 최종판매 연결 불일치(xxx%)로 정상가격에 사용되지 못하였으므로, 정상 가격 산정에 누락된 비율(xxx%)에 대하여 피신청인 자료 중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 (xxx CNY/톤⁷⁵⁾)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70) CCN 제조원가 계산내역 미제출, 음의 제조원가 등의 보고가 이에 해당한다.

71) World Steel Dynamics(WSD)는 1975년에 설립된 글로벌 철강 산업 트렌드, 가격 예측, 비용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로, 철강사, 철강 사용자, 장비 및 원자재 공급업자, 금융기관, 재무관리사, 정부기관, 무역상 등이 주요 고객이다.

72) 조사신청서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4개 철강사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제조원가를 구성가격 산정 근거로 제시하였다.

73) 조사실은 본 조사에서 제출된 모든 피신청인들의 제조원가는 원재료 공급 관계사, 관계사 생산자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자료의 비교 점검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74)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제조원가는 WSD의 4개 중국 생산자 가운데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평균을 적용하였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로서 최종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된 내수가격이다.

조사실은 ‘재판매 자료를 제출한 CCN별 비관계사 판매가격 및 물량 가중치(xxx%)’와 ‘대체가격(xxxCNY/톤) 및 누락된 물량 가중치(xxx%)’를 적용하여 조정한 결과를 내수판매 가격에 반영하였다.

(내수판매 비용조정)

아울러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F-2에 제출한 비용 조정요소(xxxxxxxxxxxxxxxxxxxxxx)는 산출근거 및 입증자료 미제출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정요소로 적용하지 않았다.⁷⁶⁾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⁷⁷⁾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⁷⁸⁾,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75)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xxxxxxxxxxxx 모델 내수판매 가격 xxxCNY(xxxCNY/xxx톤)을 적용하였다.

76) 본 조사에서 모든 피신청인이 내수판매 물류관련 비용(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대한 산출근거 및 입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산출방식이 불합리하여 조사과정에서 입수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정보가 부재하였다.

77)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규격 등을 구분하는 CCN 구성방법으로 ①등급, ②용도, ③규격 및 등급, ④열처리, ⑤두께, ⑥폭, ⑦길이를 기준으로 제시를 제시하였다.

78) 예비조사보고서 pp.125~140 참조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⁸²⁾하였다.

이에 따라,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및 충분성 검증 결과 정상 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및 금융비용과 적정 이윤을 합산한 구성가격⁸³⁾을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상가격 조정요소 가운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창고비용, 내륙운반비는 산출근거 및 입증자료가 누락되어 조정요소로 적용하지 않았다.⁸⁴⁾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⁸⁵⁾,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관계사 상사를 통하여 직접 한국에 수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한국에 수출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덤핑가격 조정요소는 해상운임비(CFR 조건), 신용비용, 은행수수료(LC 비용 포함), 커미션, 핸들링비용, 통관비용 및 증치세 미환급액을 적용하였다.

증치세 미환급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사항은 아니나, 중국 정부는 철강재 수출에 대하여 13%의 증치세 환급제를 '21.5월 폐지⁸⁶⁾하였는 바, 매입 증치세 미환급으로

82)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총 내수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전체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하였다. 다만, CCN별 내수판매량의 경우, 해당 CCN의 한국 수출량 대비 내수판매량이 5% 미만인 경우, 구성가격을 적용하였다.

83) 제조원가는 조사신청서의 원가자료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고, 판매관리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적정 이윤율은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윤율(xxx%)을 적용하였다.

84) 본조사에서 모든 피신청인이 내수판매 물류관련 비용(xxxxxxxxxxxxx)에 대한 산출근거 및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 조사과정에서 입수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85) 예비조사보고서 p.147 참조

86) 중국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HS별 수출 퇴세율을 공시하고 있다.

발생한 비용을 수출 조정요소로 차감하였다.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 받은 가격을 CIF⁸⁷⁾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 및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29.62%의 예비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 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다.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⁸⁸⁾ 그 관계사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⁸⁹⁾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중국 강소성, 절강성(XXXXXXXXXXXXXXXXX XXX) 및 싱가포르(XXX)에 소재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상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로,⁹⁰⁾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로

87)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88) 조사개시 당시에는 수입통관자료의 수출자(Xisc Singapore Pte. Ltd.)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으나, 예비조사 답변자료에서 생산자로 파악된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Ltd. 및 그 관계사'를 피신청인으로 한다.

89) 예비조사보고서 p.165 참조

90)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이 xxxxxxxx Xisc Singapore Pte. Ltd.의 지분을 xxx% 보유하고 있다.

직접 관련되어 있어, 단일경제실체로 간주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약 xxx만톤 생산하여, xxxxxxxxxxxx

[illegible][illegible]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⁹¹⁾,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정보 및 경영통계, 내수판매 및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한 조정요소, 제조원가 및 판매 관리비 등을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였다.

조사실에서 원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와 관련하여,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자료가 다음과 같이 합리적 기한내 제출되지 않았다.⁹²⁾

① 주요 원재료 관계사 구매 관련 자료 미제출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조사대상물품 생산을 위해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주요 투입
요소별 수량, 금액 및 관계사의 생산원가와 비관계사에 대한 판매자료,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수량, 금액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91) 예비조사보고서 p.167 참조

92)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는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 예비 및 최종 판정에 심각한 방해로 이어질 경우, 무역위는 별도로 입수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답변서 G-2.2.g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대해 거래처별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원답변서에서 주요 투입요소를 구매한 xxx개 원재료 공급사와 각 구매 물량 및 금액을 보고하였으며, xxxxxxxxxx xxx개사만이 원재료 공급 관계사라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은 보충질의 답변서에서 xx
 (xxx))를 관계사로 추가 보고하였으며, 이외에는 원재료
 공급 관계사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23년 사업보고서에서, G-2.2g에서 비관계사라고 답변한 원재료 공급사 가운데 xxx개사가 피신청인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한 실질적 지배·통제 내지 동일 모회사의 통제를 받는 관계사임을 확인하였다.⁹³⁾

이에 따라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주요 원재료의 적정 시장가격 판단을 위한 관계사 거래내역과 관계사 생산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⁹⁴⁾

[illegible]

94) 피신청인은 예비판정전 이해관계인회의(2025.2.11)에서 원재료 공급사인 xxxx는 xxxxxxxx 관계로 직접 지배할 수 없어 원가자료 등을 입수 할 수 없고, xxxxxxxx 원재료 공급사는 구매비율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 i) 그러나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원답번호 및 보충질의 답변서에서 원재료 공급 관계사를 비관계사라고 보고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주요 투입요소의 관계사 거래 검증 및 적정 시장가격 판단에 관한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ii) 아울러 조사실은 피

② 원가의 완전성 검증 자료 미제출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제출된 원가 파일 금액이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원가로부터 도출된 금액임을 단계별로 입증하고 원천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⁹⁵⁾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G-3.1에서 요청한 원가의 연결(감사보고서, 시산표, 보조부, 회계 시스템과 제출된 자료의 단계별 연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부록 G-3.1.a.iii에서 제조경비 요약 자료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조원가의 완전성 검증을 위해 요청한 입증 및 설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CCN 원가 계산내역 미제출 등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제출된 원가 파일 중 내수 및 한국수출 최다판매 CCN에 대하여, COM 파일에 보고된 원가의 산출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신청인이 xxxxxxxxxx 구매한 주요 원재료(xxx)의 거래비중이 xxx% 수준에 달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 95) 질의내용 “귀사의 손익계산서와 반덤핑조사를 위하여 제출한 원가 사이에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아래의 지침에 따라 제출하십시오. 자료는 귀사의 재무제표에서 시작하여, 최종 보고된 원가 데이터까지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원천 데이터를 표시하십시오
- i. 감사보고서상의 손익계산서의 원가와 귀사 회계 장부(시산표, 보조부 등) 원가의 연결
 - ii. 귀사 회계장부 상의 원가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원가 식별
 - iii. 회계장부 상의 조사대상기간 원가와 원가시스템 상의 원가 연결
 - iv. 원가시스템상의 원가와 제조원가의 연결
 - v.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제조원가와 무역위에 보고한 원가와 연결
- 보고에서 제외된 제품의 리스트와 이유”

그러나 피신청인은 원답변서에서 보고된 CCN 제조원가가 산출된 방식과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원답변자료 누락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내수 최대 판매 CCN에 대한 제조원가 산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수출 최대 판매 CCN에 대한 자료는 여전히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은 G-3.2 제조원가에서 제품코드 및 모델명만 제출하였을 뿐, CCN 필드항목을 전체 공란으로 제출하여 질의서 요구사항에 따라 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보충질의 답변에서 ERP 시스템은 CCN이 아닌, 제품의 등급별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사실이 송부한 질의서에서는 CCN을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계산하고, 모든 원가 및 판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실은 조사개시 공고(2024-17, '24.10.4)에서 4주 이내에 CCN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G-5 판매 생산원가에서 보고한 단위당 제조원가에 7개 CCN 특성 가운데 두께, 폭, 길이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⁹⁶⁾

96) 조사실은 G-5 생산원가의 CCN 개수는 xxx개이며, 제조원가는 xxx개인 바, CCN 구성요소인 등급, 용도, 규격, 열처리, 두께, 폭, 길이 특성 가운데 두께, 폭, 길이의 차이가 원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CCN 제조원가의 산출방식 및 증빙자료를 합리적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고⁹⁷⁾, G-3.2a 파일 CCN 자료를 전체 누락하였으며, G-5 파일 제조원가(G-5)는 CCN의 특성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⁹⁸⁾

아울러 조사실은 요청한 원가내역이 피신청인이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정보습득의 어려움이 크거나 제출분량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신속한 조사진행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기한내 요청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수출가격 및 조정사항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수출판매 송장금액(SALESAM)을 거래통화 기준으로 답변하고 단위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현지통화 순송장금액(TURNOVER)을 회계시스템에 기록된 내수통화로 보고하고, 해상운반비는 별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미화로 거래된 실제 송장가격이 아닌, 위안화 환산 가격을 보고하고, 환율 및 해상운반비와 과세가격(CIF)⁹⁹⁾을 미제출하였다.

97) 피신청인은 예비판정전 이해관계인회의(2025.2.11)에서, 보충질의 답변서를 통하여 CCN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 그러나 조사실은 CCN 제조원가 계산내역이 원답변서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답변사항임에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면밀한 검증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원가 자료가 조사가 개시된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출된 것은 합리적 기한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ii) 또한 조사실은 보충질의 누락된 답변자료의 제출이 아닌, 원답변자료의 검증을 위한 것임을 고지하였다. iii) 피신청인은 수출과 내수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제조원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사유로 내수 최다판매 모델 1개 CCN에 대해서만 원가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수출과 내수의 원가계산내역이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2개 대표 CCN의 제조원가 계산내역을 샘플로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다.

98) 피신청인은 예비판정전 이해관계인회의(2025.2.11)에서 두께, 폭, 길이, 용도, 표준 등급은 비용과 무관하며, xxxxxxxxxxxxxxxx이 비용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i) 그러나 조사실은 두께, 폭, 길이, 용도, 표준등급이 비용과 무관하다는 피신청인 의견은 입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두께, 폭, 길이 등에 따른 가공시간의 차이, 판매가격의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ii) 아울러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B-5.3.2 한국수출 판매 증빙에서도 xxxxxxxxxxxxxxxx 제품이 xxxxxxxxxxxxxxxx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원답변서에서 제출된 판매샘플 증빙의 물량합계(xxxMT)가 수출 데이터 E-2에 제출된 해당 인보이스(xxxxxxxxxxxxxxxx) 물량합계(xxxMT)와 상호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답변부록 B-5.3.2에서 확인된 판매샘플 거래조건 (CFR)과 달리, 수출 데이터 E-2에서 FOB 조건으로 가격을 제출하여 질의서 지침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보충질의에서 수출판매와 관련된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기한내 일부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다.¹⁰⁰⁾

다만 피신청인은 2025.2.11 이해관계인회의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보충질의 답변
자료가 일부 확인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illegible]

이에 따라 조사실은 당초 피신청인이 실제 거래된 수출금액, 해상운임, 환율정보를 누락하여 검증 불가능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입증자료 제출 및 적절한 소명

99) 피신청인은 과세가격 답변과 관련하여, “시스템 FOB 기록 영수증 금액에 따라 보고하여, 선적비 금액 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질의서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수입신고를 맡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므로, 적용사항이 없다고 답변”하며 CIF 가격 정보를 합리적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illegible]

101) 이에 따라 조사실은 판매샘플 증빙의 물량합계(xxxMT)와 수출 데이터 E-2에 제출된 해당 인보이스 (xxxxxxxxxxxxxxxxxxx) 물량합계(xxxMT)가 상호 입증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⑤ 관계사 미보고 및 관련 비용 미제출

피신청인은 원답변서에서 조사대상물품의 xxxxxxxxxxxx, xxxxxxxxxxxx의 판매 및
원가자료를 제출하였고, 보충질의에서 그 외의 관계사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xxxxxxxxxxxxxxxx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조사대상기간동안 조사대상물품의 해당 세번 및 규격의 제품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¹⁰³⁾

또한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관계사 가운데
 xxxxxxxxxxxxxxxxxxxxxx¹⁰⁴(xxxxxx)이 조사대상물품의 수출판매 활동(판매홍보)과 관련된

104)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홈페이지에서 “자사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ISC의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모든 관계사 현황정보를 제출하고,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관계사의 전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상당수의 주요 관계사(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자료를 미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거래건별 판매자료와 그에 대한 조정사항을 제시하고, 표본 거래에 대하여 조정사항을 입증하는 증거세트 및 관련 필드에 보고한 비용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내륙운반비를 산정함에 있어 조사·비조사대상물품, 판매시장, 거래처 등 비용차이 요소의 고려없이 단위당 비용을 산정하여, 산출방식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45 -

피신청인이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2,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조사신청서의 제조원가와 다른 피신청인의 해상운임 단가 및 보험료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 기간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원가)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주요 원재료의 관계사 구매 자료, 원가의 완전성 검증 자료,

[illegible]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조사신청서의 자료는 독립된 출처이며 공신력 있는 글로벌 철강 조사기관(World Steel Dynamics)¹⁰⁶⁾에서 입수한 중국 생산자의 제조회사이다.

아울러 조사실은, 이용가능한 자료가 xx
 xx 2024.7월 ~
 2025.5월간 평균 제조원가로서,¹⁰⁷⁾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제조원가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⁰⁸⁾¹⁰⁹⁾

(과세가격)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요청한 과세가격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피신청인¹¹⁰⁾이 제출한 해상운임 단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105) 피신청인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CCN 제조원가의 산출방식 및 증빙자료를 합리적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고, G-3.2a 파일 CCN 자료를 전체 누락하였으며, G-5 파일 제조원가(G-5)는 CCN의 특성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106) World Steel Dynamics(WSD)는 1975년에 설립된 글로벌 철강 산업 트렌드, 가격 예측, 비용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로, 철강사, 철강 사용자, 장비 및 원자재 공급업체, 금융기관, 재무관리사, 정부기관, 무역상 등이 주요 고객이다.

[illegible]

108) 조사실은 본 조사에서 제출된 모든 피신청인들의 제조원가는 원재료 공급 관계사, 관계사 생산자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자료의 비교 점검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illegible][illegible]

조사과정에서 다른 피신청인으로부터 취득한 검증 가능한 정보이다.

(비용조정사항)

조사실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용비용 및 내륙운반비의 산출방식이 불합리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정요소로 적용하지 않았다.¹¹¹⁾

(커미션 판매비)

피신청인은 수출판매·홍보 활동과 직접 관련된 관계사를 누락하고, 판매비용(커미션)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실은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관계사(xxxxxxxxxx)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용(xxx%)을 확인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적정 조정비용 반영을 위하여 본조사 추가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¹¹²⁾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111) 본조사에서 모든 피신청인이 내수판매 물류관련 비용(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대한 산출 근거 및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 조사과정에서 입수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정보가 없었다.

112)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규격 등을 구분하는 CCN 구성방법으로 ①등급, ②용도, ③규격 및 등급, ④열처리, ⑤두께, ⑥폭, ⑦길이를 기준으로 제시를 제시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¹¹³⁾,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xxx 관계사에게 자가소비 용도로 내수판매한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한 결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비관계사 판매 가격 대비 xxx%)를 제외한 xxxx 관계사 판매단가가 비관계사 판매단가의 98%~102% 범위를 벗어나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모든 CCN에 대하여 순송장가격과 생산원가¹¹⁴⁾를 비교하여, 원가 미만 판매 물량이 20%이상인 경우에는 원가이상 판매를, 20%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를 정상가격 산정에 사용하였다.

다만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시, 제조원가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주요 원재료 관계사 구매 및 생산원가 자료, 원가의 완전성 검증 자료, CCN 제조원가 계산내역 등 자료, 조사대상물품 관계사 생산자 자료 등을 미제출함에 따라, 조사신청서의 제조원가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결과,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에 대하여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113) 예비조사보고서 pp.176~214 참조

114)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적용하였다.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¹¹⁵⁾하였다.

이에 따라,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및 충분성 검증 결과 정상 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및 금융비용과 적정 이윤을 합산한 구성가격¹¹⁶⁾을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용비용, 내륙운반비는 산출 근거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정요소로 적용하지 않았다.¹¹⁷⁾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¹¹⁸⁾,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관계사 상사를 통하여 직접 한국에 수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한국에 수출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덤핑가격 조정요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륙운반비, 신용비용 및 증치세 미환
급액을 적용하였다.

증치세 미환급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사항은 아니나, 중국 정부는 철강재 수출에 대하여 13%의 증치세 환급제를 '21.5월 폐지¹¹⁹⁾하였는 바, 매입 증치세 미환급으로

115)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총 내수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전체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하였다. 다만, CCN별 내수판매량의 경우, 해당 CCN의 한국 수출량 대비 내수판매량이 5% 미만인 경우, 구성가격을 적용하였다.

116) 제조원가는 조사신청서의 원가자료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고, 판매관리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적정 이윤율은 xxx(xxx%) 적용하였다.

117) 본조사에서 모든 피신청인이 내수판매 물류관련 비용(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대한 산출근거 및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 조사과정에서 입수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118) 예비조사보고서 p.276 참조

119) 중국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HS별 수출 퇴세율을 공시하고 있다.

발생한 비용을 수출 조정요소로 차감하였다.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 받은 가격을 CIF¹²⁰⁾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 및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38.02%의 예비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 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라.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미대웅 공급자)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¹²¹⁾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이하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제출기한내 조사참여신청서(기한 2024.10.28)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내(2024.11.18.)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2,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120)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121) 예비조사보고서 p.343 참조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의 예비조사 결과 덤핑률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 기간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실은 2024.10.7. 덤핑률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답변기한 : 2024.11.18.)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답변서를 미제출할 경우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등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WTO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실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예비조사결과 덤핑률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다른 이해당사자의 자료(내수·수출가격, 판매관리비)' 및 '독립된 출처의 자료(제조원가)'를 사용하여 산정된 결과이다.

따라서 조사에 참여하여 답변자료를 제출한 공급자의 예비덤핑률 결과는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2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해당한다.

아울러 동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 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38.02%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마. 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미대웅 공급자)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¹²²⁾ 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이하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제출기한내 조사참여신청서(기한 2024.10.28)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내(2024.11.18.)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2,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의 예비조사 결과 덤핑률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 기간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실은 2024.10.7. 덤핑률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122) 예비조사보고서 p.344 참조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답변기한 : 2024.11.18.)

조사실은 질의서에서 답변서를 미제출할 경우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등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WTO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실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예비조사결과 덤핑률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다른 이해당사자의 자료(내수·수출가격, 판매관리비)’ 및 ‘독립된 출처의 자료(제조원가)’를 사용하여 산정된 결과이다.

따라서 조사에 참여하여 답변자료를 제출한 공급자의 예비덤핑률 결과는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2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해당한다.

아울러 동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 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38.02%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바. 그 밖의 공급자

예비조사보고서¹²³⁾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공급자의 예비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Ltd. 및 그 관계사,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Ltd. 및 그 관계사의 예비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31.69%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고 결정한다.

123) 예비조사보고서 p.346 참조

V. 국내산업의 피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WTO 반덤핑협정 제3.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관련하여서는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덤핑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덤핑물품이 동종 물품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가에 판매되었는지,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을 하락 시키거나 가격상승을 억제하였는지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 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 하여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 효과와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량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예비조사보고서¹²⁴⁾에 따르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21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103.9% 증가하였고, 2023년 xxx톤으로 전년대비 85.2% 증가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xxx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이 58.4%로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4.0%p 상승하였다. 반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4.1%p 하락하였다. 이외에도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xxx%에서 2022년 xxx%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0.03%p 상승하였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연평균 58.4% 증가하여 국내소비(연평균 $\Delta 0.7\%$)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또한 확대(연평균 14.0%p)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연평균 $\Delta 6.5\%$)과 시장점유율(연평균 $\Delta 14.1\%$ p)은 국내소비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인 증가가 확인되었다.

124) 예비조사보고서 pp.350-352 참조

한편, 공급자측인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의 생산과 물류가 비상상태인 특수한 시기를 조사대상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연장하여 2015년~2020년을 조사대상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이를 고려한 2015년~2024년 상반기까지 덤핑물품 연평균 수입물량은 90만톤,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수입물량은 84만톤으로 덤핑물품이 대폭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덤핑물품 수입량 증가 원인은 2022년 태풍으로 인한 포스코의 공장 가동 중단, 현대제철 파업, 국내산업의 수출량 증가, 조선업체의 수주량 상승 등으로 인한 국내공급 부족이고,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기타국산 수입 대체로 인해 발생했으며,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태풍,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하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덤핑물품, 기타국산 및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추이 변화¹²⁵⁾를 살펴보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감소는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증가에 기인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2021년 4.30%, 2022년 9.35%, 2023년 15.06%)한 반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2021년 85.21%→2022년 75.42%→2023년 73.86%)하였고, 기타국산 물품은 2021년 10.50%에서 2022년 15.22%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11.07%로 전년대비 4.15%p 감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125) 이하 신청인 주장에 언급된 수치는 중국강철공업협회가 제출한 국내산업피해 의견서('25.1.21. 제출)의 <표 5. 국내소비, 시장점유율 상황>에서 인용되었고, 해당 표는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출입실적, 철강금속신문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2015년 및 2016년은 이미 10년 전 상황으로 현재 산업피해 유무를 판단하기에 적절치 않은 시기이고, 조사대상기간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시기로 수입물량이 대폭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¹²⁶⁾ 무역위원회는 현재 조사대상기간을 판단기준으로 해야 하며, 신청인의 수출 증가는 덤핑물품 수입으로 내수판매 실적이 급속히 감소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기타국산 수입대체, 국내소비, 수출량 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후술¹²⁷⁾하는 바와 같이 제한적이고, 코로나 19 시기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2015년~2020년 기간이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2022년 태풍 힌남노 및 신청인의 파업 등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본조사에서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다.

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예비조사보고서¹²⁸⁾에 따르면,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1년 xxx천원, 2022년 xxx천원으로 전년대비 9.1% 상승하였으나, 2023년은 xxx천원으로 전년대비 20.0% 하락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xxx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4%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5% 하락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1년 xxx천원, 2022년 xxx천원으로 전년대비 21.8% 상승하였으나, 2023년은 xxx천원으로 전년대비 11.3% 하락

126) 신청인은 코로나19 시작전인 2017~2019년 연평균 수입량은 65.2만톤, 2023년은 126만톤으로 2017~2019년 수입량에 비해 2023년 수입량이 약 2배 가량 증가였고, 2024년 상반기 수입량도 67만톤으로 2017-2019년 연평균 수입량보다 높은 수준인 것을 볼 때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덤핑물품 수입증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27) 본 의결서 4.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참조

128) 예비조사보고서 pp.353-355 참조

하였고, 2024년 상반기는 xxx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6%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조사실은 덤핑물품 판매가격이 2022년 국내 동종물품보다 전년대비 상승폭이 적었고, 2023년에는 하락폭이 컸던 점, 그리고 판매가격 등락방향이 일치하는 점을 감안할 때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 대비 2021년 xxx%로 높았으나,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 수준으로 2022년부터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덤핑물품이 저가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9.1% 상승하였으나, 2023년 전년대비 20.0% 하락, 2024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5.4%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5% 하락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21.8% 상승하였으나, 2023년 전년대비 11.3% 하락, 2024년 상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7.5% 하락하여 연평균 0.6% 상승하였다.

조사실은 2023년 및 2024년 상반기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각각 xxx%, xxx% 수준으로 저가에 판매되었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하락($\Delta 5.5\%$)한 반면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상승(0.6%)하였는데, 특히 2023년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20.0% 하락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전년대비 $\Delta 11.3\%$)에 영향을 주었다고 검토하였다.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23년 및 2024년 상반기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2024년 상반기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1.6%)하였으나, 그 판매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7.5% 하락하여 제조원가 비중이 xxx%를 차지하는 점, 조사대상기간 중 동종물품 제조원가 증가(7.2%)에 비해 판매가격이 소폭 증가(0.6%)하여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덤핑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조사실은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목표판매가격 대비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이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바, 2022년부터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된 덤핑물품이 국내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한편, 예비조사보고서¹²⁹⁾에 따르면 공급자측인 중국강철공업협회는 품질 차이로 발생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하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대형 조선소는 공급차질 리스크 통제를 위해 구매비중의 20~30%를 덤핑물품으로 구매하며, 조선소는 시장가격 차이를 승인한 가격협상을 하기 때문에 중국산이 국내산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선용 후판의 장기계약 방식은 일반적 유통시장 가격 방식과의 시간차이¹³⁰⁾가 있으므로 가격결정방식 차이를 구분한 후 조사대상물품 가격

129) 예비조사보고서 pp.356-357 참조

130) 중국강철공업협회는 계약방식 차이에 대해 국내 생산자는 선납품 후가격협상으로 반기별로 가격책정하여 최종가격이 당기 실제가격을 반영하기 어려운 반면, 조사대상공급자는 분기별 가격책정 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을 분석하여 국내 수급의 영향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종물품의 가격변화는 원재료 가격 및 태풍, 파업 등으로 인한 국내 수급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시킨 것이 아니고, 가격상승 억제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급자측이 덤핑물품의 저가판매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물품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산업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으로 품질간 차이가 없고, 조선사들은 중국산 후판의 저가 공급을 신청인과 국내 동종물품 구매가격협상에서 중요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급자측의 장기계약과 유통시장 가격간의 유의미한 차이 주장은 공급자의 차별적 가격정책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덤핑관련 답변서에 가격책정방식에 차이가 없다는 답변은 허위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공급자측이 주장하는 가격결정방식의 차이 및 그 차이와 국내수급 영향에 대한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국내 수급 및 원재료 가격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영향은 후술¹³¹⁾하는 바와 같이 제한적이라고 검토하였다. 다만, 태풍 및 파업 등이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본조사에서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다.

이러한 조사실의 분석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 및 가격상승 억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131) 본 의결서 4.2)(2)국내소비 변화, (3)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참조

3. 덩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생산량 및 가동률

예비조사보고서¹³²⁾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간 xxx톤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급자측은 국내산업의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2021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7.8% 감소하다 2023년 xxx톤으로 6.3% 증가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xxx톤으로 3.9%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7%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 가동률은 2021년 xxx%에서 2022년 xxx%로 6.0%p 하락하였고, 2023년은 xxx%로 4.5%p 상승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 xxx%로 3.0%p 하락하여 2021년 대비 3.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판매 및 재고

예비조사보고서¹³³⁾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 2024년 상반기 xxx톤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5% 감소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2022년에는 전년대비 26.3% 감소하였으나, 2023년 전년대비 39.5%, 2024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20.3%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재고율은 2021년 xxx%에서 2024년 상반기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4.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32) 예비조사보고서 p.359 참조

133) 예비조사보고서 p.359 참조

3) 시장점유율

예비조사보고서¹³⁴⁾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1년 xxx%에서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4.1%p 하락하였다. 이에 반하여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4.0%p 상승하였다. 이 외에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xxx%로 연평균 0.03%p 상승하였다고 조사되었다.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예비조사보고서¹³⁵⁾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2021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으로 35.5% 상승, 2023년 xxx천원으로 11.8% 하락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1.6%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2% 상승하였다. 항목별로는 재료비 비중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xxx%로 가장 커 동종물품 가격에 재료비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단위당 재료비(2022년 44.0% 상승, 2023년 16.3% 하락, 2024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2.8% 하락, 연평균 6.3% 상승)는 동종물품 가격과 매년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단위당 제조원가는 동종물품 판매가격 대비 2021년 xxx%에서 2022년 xxx%로 상승 후 2023년 xxx%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 xxx%로 상승하여 2021년 대비 2024년 상반기에는 16.7%p 상승하였다. 이는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과 시장

134) 예비조사보고서 pp.360-361 참조

135) 예비조사보고서 pp.361-362 참조

점유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2022년부터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 판매되어 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기간 중 재료비는 연평균 6.3% 상승하고, 단위당 제조원가는 연평균 7.2% 상승하였으나,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0.6% 상승에 그쳐 덤핑물품 판매가격(연평균 △5.5%)으로 인해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덤핑마진의 크기

예비조사보고서¹³⁶⁾에 따르면, 조사실이 산정한 덤핑물품의 예비덤핑률은 27.91~38.02%로 덤핑마진의 크기가 미소마진 이상이라고 검토하였다.

6) 이윤

예비조사보고서¹³⁷⁾에 따르면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 국내시장 매출액은 2021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으로 12.9% 증가하였으나, 2023년 xxx백만원으로 16.3% 감소 후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0% 연이어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5.9% 감소하였다. 내수부문 영업손익은 2021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으로 59.9% 감소하였고, 2023년 xxx백만원 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1년 xxx%에서 2022년 xxx%, 2023년 xxx%로 감소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6) 예비조사보고서 p.362 참조

137) 예비조사보고서 pp.362-363 참조

7) 투자수익률

예비조사보고서¹³⁸⁾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투자자산총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계산된 투자수익률은 2021년 xxx%에서 2022년 xxx%로 전년대비 3.1%p 하락 후, 2023년 xxx%로 전년대비 1.2%p 하락, 2024년 상반기 xxx%로 전년동기 대비 5.6%p 하락하는 등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 현금흐름

예비조사보고서¹³⁹⁾에 따르면 동종물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1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xxx백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xxx백만원으로 계속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7.5%를 기록하는 등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고용 및 임금

예비조사보고서¹⁴⁰⁾에 따르면 국내생산자의 연평균 고용인원(생산직+사무직)은 2021년 xxx명에서 2022년 xxx명, 2023년 xxx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 xxx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2%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임금은 2021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으로 5.0% 증가하였으나, 2023년 xxx백만원으로 6.4% 감소,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38) 예비조사보고서 p.363 참조

139) 예비조사보고서 pp.363-364 참조

140) 예비조사보고서 p.364 참조

10) 생산성

예비조사보고서¹⁴¹⁾에 따르면 1인당 매출액은 2022년에는 상승하였으나, 2023년 및 2024년 상반기 모두 감소하였고, 1인당 부가가치 역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부정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1인당 매출액은 2022년에는 전년대비 12.9% 상승하였으나, 2023년 및 2024년 상반기 각각 11.4%, 8.7%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9% 감소하였고, 1인당 부가가치는 2021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상반기는 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0%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연평균 29.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성장성

예비조사보고서¹⁴²⁾에 따르면 내수영업이익은 2022년 및 2023년 전년대비 각각 59.9%, 22.0% 감소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적자로 전환하였다. 시장점유율은 2022년 및 2023년 전년대비 각각 8.0%p, 5.0%p 감소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도 1.1%p 감소하여 내수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 모두 조사대상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동률은 2022년 전년대비 6.0%p 감소하였으나, 2023년 전년대비 4.5%p 증가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3.0%p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3.8%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41) 예비조사보고서 p.365 참조

142) 예비조사보고서 pp.365-366 참조

12) 자본조달능력

예비조사보고서¹⁴³⁾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적자전환되어, 내부 자본조달능력이 악화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13)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예비조사보고서¹⁴⁴⁾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에도 매년 설비투자를 하였던 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설비투자 금액은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은 xxx백만원을, 2024년 상반기는 xxx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54.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개발의 경우,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으로 증가 후 감소하다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다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4) 종합 검토

이상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는 국내산업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하였으나,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영업이익의 적자전환, 투자수익률 감소, 현금흐름 악화, 연평균 1인당 임금 하락, 생산성

143) 예비조사보고서 p.366 참조

144) 예비조사보고서 pp.366-367 참조

악화 등 국내산업 주요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실질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덤핑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상대적으로 급증하였고, 시장점유율도 증가한 반면,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점유율은 감소하였고, 덤핑물품이 국내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4.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수입품이 동 협정 제3.2조와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덤핑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덤핑물품 수입의 절대적·상대적 물량 및 가격이 국내 동종 물품의 내수판매량 및 가격에 미친 효과(물량 및 가격효과),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미친 영향 등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와 덤핑물품 수입 이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예비조사보고서¹⁴⁵⁾에 따르면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와 관련하여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효과 및 가격효과)와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연평균 58.4%)했고, 국내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상반기 xxx%)하였으며,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점유율은 2021년 xxx%에서 2024년 상반기 xxx%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종물품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2021년에는 xxx%, 2022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 xxx%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연평균 0.6% 상승한 반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연평균 5.5% 하락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덤핑물품과의 가격경쟁 대응을 위해 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이 억제되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145) 예비조사보고서 pp.368-371 참조

2022년에는 덤핑물품 판매가격보다 상승폭이 컸고, 2023년에는 덤핑물품 판매가격보다 하락폭이 더 적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제조원가 상승(1.6%)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하락($\Delta 7.5\%$)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제조원가는 연평균 7.2% 상승하였으나,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0.6% 상승한 바, 덤핑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연평균 $\Delta 5.5\%$)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 생산량이 연평균 1.7% 감소함에 따라 가동률은 2021년 대비 2024년 상반기에는 3.8%p 하락하였고, 내수 영업이익률은 적자 전환, 1인당 부가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연평균 증감률이 $\Delta 29.7\%$ 를 기록하는 등 국내산업피해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공급자측인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신청인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은 봉형강 실적 감소, 전기료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제조원가 상승과 중량 및 두께 면 등에서 제품 경쟁력 부족으로 덤핑물품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급자측이 신청인 국내산업의 이익감소가 봉형강 제품 판매량 감소, 제품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공비 증가 영향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 국내산업 회사 전체의 상황을 기술한 투자자 설명자료로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동종물품의 산업피해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본 조사의 영업이익 검토는 동종물품에 대한 분석으로 봉형강 제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고, 제품 경쟁력에 대한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후술¹⁴⁶⁾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검토하였다. 다만, 전기료 상승이 영업이익 감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본조사에서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실에 제출된 모든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예비적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1)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예비조사보고서¹⁴⁷⁾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이외 기타국산 수입물량은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 20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연평균 0.6%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도 2022년에는 전년대비 3.5%p 상승하였으나, 2023년에는 2.6%p 감소, 2024년 상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0.3%p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0.0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덤핑물품 판매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바, 기타국산 물품의 가격 효과가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146) 본 의결서 4.2)(3)주요 원재료 가격추이 참조

147) 예비조사보고서 p.373 참조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 점유율은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상승분에 비해 소폭 상승(0.03%p)하였고, 수입물량은 소폭 하락($\Delta 0.6\%$)하였으며, 판매가격도 덤핑물품보다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2) 국내소비 변화

예비조사보고서¹⁴⁸⁾에 따르면 국내소비는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5%, 1.0%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7% 감소하였다. 동종물품의 내수 판매량은 2022년 전년대비 7.3% 감소, 2023년 5.6% 감소, 2024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11.3% 감소하여 국내소비가 증가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의 감소율($\Delta 0.7\%$)보다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Delta 6.5\%$)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58.4% 증가하였는데, 2022년 전년대비 103.9% 증가, 2023년 85.2% 증가하여 국내소비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하여 국내소비 감소율보다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는 감소($\Delta 0.7\%$)하였으나,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58.4%)하여, 국내소비 감소보다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148) 예비조사보고서 p.374 참조

(3) 주요 원재료 가격추이

예비조사보고서¹⁴⁹⁾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에서 xxx% 수준으로 주요 원재료는 철광석 및 석탄으로 조사되었다. 철광석의 톤당 가격은 2021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 2023년 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0%, 7.6% 하락 후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9% 하락하였고, 석탄의 톤당 가격은 2021년 xxx천원에서 2022년 xxx천원으로 146.3% 상승, 2023년 xxx천원으로 20.6% 하락 후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6%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4.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은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원재료비가 연평균 6.3% 상승하였음에도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재료비 상승폭보다 훨씬 작은 연평균 0.6%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원재료비의 상승분이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149) 예비조사보고서 p.375 참조

(4) 수출 실적

예비조사보고서¹⁵⁰⁾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021년 xxx톤에서 2022년 xxx톤으로 6.7% 감소하였으나, 2023년 xxx톤으로 36.3% 증가, 20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6.6%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1.9% 증가하였다. 동종물품의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다르나, xxx%~xxx% 수준으로 내수판매량이 수출량보다 약 xxx~xxx배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경우 내수판매량과 수출량이 동반감소하였으나, 2023년 및 2024년 상반기에는 수출량은 증가한 반면, 내수판매량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2022년부터 수출판매가격이 내수판매가격보다 높은 이유는 덤핑 물품 수입으로 인한 가격경쟁으로 내수판매가격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수출판매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높은 수출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공급자측은 동종물품의 수출량 증가가 국내소비 감소 등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국내산업은 수출량 증가 시 내수판매량 감소보다 가동률을 높여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나, 수출량이 증가된 2023년 가동률(xxx%)은 2021년(xxx%)보다 여전히 낮고, 2024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수출량이 증가했으나, 가동률은 감소(xxx%)하여 수출량 증가가 내수판매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수출관련 판매가격 및 영업이익 등은 회계처리 시 별개로 산정되고, 2022년

150) 예비조사보고서 pp.376-377 참조

부터 내수부문보다 수출부문 판매가격 및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높았으므로 내수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소비 감소¹⁵¹⁾보다 덤핑물품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미쳤고, 수출량 증가가 내수부문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5) 기타 요인

예비조사보고서¹⁵²⁾에 따르면,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 검토 요소로 열거된 외국 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등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주장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조사실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을 거의 전부 대체하는 등 수입물량 측면에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증가하였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덤핑물품이 저가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151) 본의결서 4.2)(2) 국내소비 변화 참조

152) 예비조사보고서 p.377 참조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고, 가동률 및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감소되었다고 검토하였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국내산업의 주요지표인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상반기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한편, 조사실은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이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국내소비 감소폭보다 동종물품 판매량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국내산업의 수출 등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덤핑물품의 수입 이외의 요인들을 검토한 결과 이들 요인들은 국내산업 피해에 의미있는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5. 이해관계인의 기타 의견 검토

1) 덤핑방지관세 소급부과 적용 관련

예비조사보고서¹⁵³⁾에 의하면 신청인은 조사개시 이후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급증하여 산업피해가 심화되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¹⁵⁴⁾에 따라 덤핑방지관

153) 예비조사보고서 p.379 참조

세 소급부과 적용을 요청하며 향후 신청서 제출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소급부과 적용을 요청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 및 조사개시는 냉각효과를 야기하여 산업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나, 본 건의 경우 2024년 7월 대비 조사개시한 2024년 10월에 덤핑물품 수입이 25% 가량 증가하였고, 가격은 약 16% 인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공급자측인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덤핑 및 실질적 피해에 대한 법적인 판정을 내린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조사개시 사실만으로 그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결론 도출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덤핑 물품 수입이 25% 증가하고, 가격이 16% 인하되었다는 것을 단기간 내에 ‘대량’ 수입으로 보기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은 현재 잠정조치가 부과된 물품이 아니고, 대량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여부 등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바, 본조사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검토하기로 하였다.

2)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조선업계 의견 관련

예비조사보고서¹⁵⁵⁾에 의하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덤핑방지관세(26%) 부과

154) 관세법 시행령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155) 예비조사보고서 pp.380-381 참조

시 원가상승으로 연간 800~8000억원 피해가 발생하고, 중형 조선사 등의 경영난이 가중되며, 일부공정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생산비용 상승 및 선박 건조일정 차질로 지체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철강사 의존도를 높여 시장 독과점 구조가 강화되는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정부의 증치세 폐지¹⁵⁶⁾ 및 덤핑방지관세로 추가된 철강 원자재 가격 차이로 인해 국내 조선업체는 對중국 경쟁력 상실 우려가 있고, 조선업 뿐만 아니라 기자재, 건설, 기계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내산업이 조선산업의 원활한 선박제조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공장 증설, 신제품 개발 등 조선업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고, 덤핑물품 수입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여 2024년 상반기에는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조선업은 2024년 상반기 양호한 상황으로 특히 대형 조선사들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26%) 부과 시 조선업계 부담액은 약 713억원으로 국내 대형조선3사 매출원가의 약 0.176%이나,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한 신청인 1개사의 영업손실(2024년 상반기)만 xxx억원이라고 주장하였다.

156) 중국철강업체가 수출시 정부에서 환급받았던 13%의 세금이 '21.5월부터 중단되었으나, 중국 조선소는 선박 수출 시 후관 증치세 13%를 환급받고 있어 국내 조선소의 중국산 후관 매입가격 대비 13% 낮게 구매 중

따라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덤핑물품의 수입급증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산업에 대한 합법적인 보호조치로서 국내 조선업계가 원가상승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국내 철강업계에 의한 독과점 상황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¹⁵⁷⁾에 따라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고, WTO 반덤핑협정, 관세법령 등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바, 조사실은 추후 이해관계인들이 관련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VI. 잠정조치 건의

예비조사보고서¹⁵⁸⁾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동종물품에 비해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연평균 58.4%)하였다고 검토되었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상승(14.0%p)하였고, 그 판매가격은 동종물품보다 소폭 상승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22년부터 동종물품보다 저가에 판매되어 2023년부터는 동종물품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에 판매되는 등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되었다.

157) 관세법 시행령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158) 예비조사보고서 pp.382-384 참조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량, 판매량은 모두 감소하고 가동률은 하락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기간 중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관세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2호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별 예비덤핑률(27.91~38.02%)에 해당하는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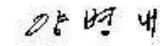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5년 02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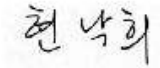
위원장 이재형



상임위원 양병내



위원 현낙희



위원 조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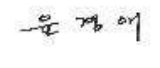
위원 강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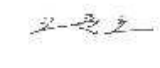
위원 권현호



위원 윤경애



위원 고준호



적 용 법 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및 제32조
-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5조 및 제71조
- WTO 반덤핑협정 제1조 내지 제6조 등

붙 임 자 료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 Baosteel Administrative Center, No. 885 Fujin Road, Baoshan District, Shanghai, China

(2) Baosteel Zhanjiang Iron&Steel Co. Ltd.

: Baosteel Zhanjiang Iron& Steel administration center, Dongjian town, Donghai island, Zhanjiang, Guangdong Province, China

(3) Wuhan Iron & Steel Co., Ltd.

: No.1 Gate of Factory Square, Qingshan District, Wuhan, Hubei Province, China

(4) Howa Trading Co. Ltd

: HOWA BLDG, 15 BANCHI, ICHIBAN-CHO, CHIYODA-KU, TOKYO 102-0082, JAPAN

(5) Guangzhou Baosteel Southern Trading Co., Ltd.

: 11th to 13th Floor, Building A1, No.191 Science Avenue, Science City, High-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Guangzhou, China

(6) Shanghai Baosteel Steel Products Trading Co., Ltd.

: 9th Floor, Building 4, 151 Mohe Road, Baoshan District, Shanghai, China

(7) Shanghai Baosteel Pudong International Trade Co., Ltd.

: No. 88 Hedan Road, Pilot Free Trade Zone, Shanghai, China

(8) Wuhan Baosteel Huazhong Trading Co., Ltd.

: No. 531 Jiangcheng Avenue, Wuhan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Wuhan, China

(9) Beijing Baosteel Northern Trading Co., Ltd.

: 16th Floor, Baosteel Building, No.12, Bing, Jianguomenwai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 (10) Chengdu Baosteel West Trade Co., Ltd.
: No. 1, 11th Floor, Unit 1, Building 13, No. 1480, North Tianfu Avenue, High-tech Zone, Chengdu, Pilot Free Trade Zone, Sichuan, China
- (11) Shenyang Baosteel North Trade Limited Company
: No. 78 Guanquan Road, Dado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China
- (12) Anhui Baosteel Steel Distribution Co., Ltd.
: No.66 Jiqiao Road, Luyang Industrial Park, Hefei, Anhui, China
- (13) Zhengzhou Baosteel Steel Processing Distribution Co., Ltd.
: Southeast corner, South part of east and south third circle, 18th Street, Zhengzhou District(Economic Development), Pilot Free Trade Zone, Henan, China
- (14) Qingdao Baosteel Steel Processing And Distribution Co., Ltd.
: No. 122 Zhishui Road, Jimo District, Qingdao, Shandong, China
- (15) Qingdao Bao-Mit Steel Distribution Co., Ltd.
: No. 6-1, Jiangshan Middle Road, Huangdao District, Qingdao, Shandong, China

2. 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Ltd. 및 그 관계사

- (1) Jiangsu Shagang Steel Co., Ltd.
: Jinfeng Town, Zhangjiagang City, Jiangsu Province
- (2) 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Ltd.
: 5th Floor, Shagang Building, Jinfeng Town
- (3) 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 9 RAFFLES PLACE #42-01 REPUBLIC PLAZA, SINGAPORE 048619
- (4) Jiangsu Shagang Group Co., Ltd.
: Jinfeng Town, Zhangjiagang City

- (5) Jiangsu Shagang Material Trade Co., Ltd.
: Jiangsu Yangtze River International Metallurgical Industrial Park (Zhenxing Road, Jinfeng Town, Zhangjiagang City)
- (6) Jiangsu Shagang Co., Ltd.
: Shagang Building, Jinfeng Town, Zhangjiagang City, Jiangsu Province
- (7) Zhangjiagang Free Trade Zone Changrong Trading Co., Ltd.
: Room 306-27, Changle Building, Zhangjiagang Free Trade Zone
- (8) Zhangjiagang Free Trade Zone Binlan Trading Co., Ltd.
: Room 306-176, Changle Building, Zhangjiagang Free Trade Zone
- (9) Jiulong Steel Logistics Co., Ltd.
: No. 2 Xingye Road, Jinfeng Town, Zhangjiagang City, Jiulong Building (Jiulong Logistics Park, Jiangsu Yangtze River International Metallurgical Industrial Park)
- (10) Zhangjiagang Runsha Steel Trading Co., Ltd.
: No. 2 Xingye Road, Jinfeng Town, Zhangjiagang City, Jiulong Building (Jiulong Logistics Park, Jiangsu Yangtze River International Metallurgical Industrial Park)
- (11) Zhangjiagang Jiusha Steel Trading Co., Ltd.
: No. 2 Xingye Road, Jinfeng Town, Zhangjiagang City, Jiulong Building (Jiulong Logistics Park, Jiangsu Yangtze River International Metallurgical Industrial Park)
- (12) Nanjing Shagang Material Trade Co., Ltd.
: Room 811, T1 building, No. 65 Beixiang Road, Nanjing City
- (13) Zhejiang Shagang Material Trade Co., Ltd.
: Room 808B, Xingnong Building, Ningbo FTZ, Zhejiang Province
- (14) Zhangjiagang Free Trade Zone Shagang Steel Trade Co., Ltd.
: Room 401E, Changyi Building Zhangjiagang FTZ, Jiangsu Province
- (15) Taixing Shagang Metal Material Co., Ltd.
: No. 33 Chengjiang West 1 Road, Taixing City, Jiangsu Province

3.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Ltd. 및 그 관계사

(1)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Ltd.

: Hunan, Xiangtan, Yuetang District, 411101, China(湘潭市岳塘區鋼城路)

(2) Xisc Singapore Pte. Ltd.

: 6 Eu Tong Sen Street, #11-21 The Central, Singapore, 059817

4.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 64D Kallang Pudding Road #10-00, Tannery Building, Singapore, 349323

5. 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 Guomao Center Building A, No.4688, Xianyue Road, Huli District, Xiamen, Fujian Province, 361000, PR China.